

# 지방간 치료 하는 건강식품 개발

## 혈중 중성지방·콜레스테롤 농도 30%이상 감소

경희약대 정세영 교수팀



(정세영 교수)

간 질환의 초기단계인 지방간을 치료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국내 연구자에 의해 개발됐다.

경희대 약대 정세영 교수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약재만을 사용해서 지방간을 해소하는 동물·임상실험에 성공, 지난 연말 식품위생안전성학회가 주최한 정기학회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80여명의 지방간 환자를 대상으로 8개월에 걸쳐 임상실험을 한 결과, 대부분 환자들의 혈중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 농도가 30% 이상 감소됨을 확인했다.

이런 지방간 개선에 대해 정 교수

는 『기능식품 성분들이 간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화를 돕기 때문에 축적된 지방들은 빠르게 분해돼 간 밖으로 배출되고 간은 정상으로 회복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어 『이 기능식품은 지방간뿐만 아니라 동맥경화나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인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의 수치도 낮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모든 간 질환의 초기에는 지방간 증세가 나타난다는 점에 착안, 지방간 단계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간을 다스려 건강기능을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연구를 지난 6년간 계속해 왔다.

그는 지방간 해소를 위해 식품으로 사용이 가능한 한약재인 「황기」, 「단삼」, 「갈근」 등 3가지 성분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었다.

동물실험에서도 좋은 효과가 입증됐다. 실험용 쥐에게 고지방식과 소량의 알코올을 6주간 먹여 지방간 증세가 되도록 했다.

그리고 쥐의 입을 통해 이 개발품을 4주 동안 투입한 결과 혈액 중에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적으로 떨어짐을 확인했다. 콜레스테롤은 그 양이 증가할수록 동맥경화증에 걸릴 확률을 낮춰주는 「고밀도리포단백 콜레스테롤(HDL콜레스테롤)」과 그 양이 증가할수록 동맥경화증을 유도하며 인체에 해로운 「저밀도리포단백 콜레스테롤(LDL)」 및 「초고밀도리포단백(VLDL) 콜레스테롤」 등으로 구분된다.

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쥐는 전체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아지면서도 HDL콜레스테롤이 증가해 건강에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개선됨이 확인됐다.

# 동아제약, 쪽방촌에 의료기기 전달

강신호 회장, 요셉의원 방문 1억원 상당 통증치료기 등 지원



◇ 강신호 회장(왼쪽에서 두번째) 등 동아제약 임원진이 사회복지회 요셉의원을 방문 의료기기 기증서를 전달하고 기념촬영한 모습.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이 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요셉병원 선우경식 원장(세

번째)에게 의료기기약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은 29일 영등포 쪽방촌에 위치한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 부설 의원인 요셉 의원을 방문, 1억원 상당의 자사 의료기기 및 수술치료 장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의료기기는 노숙자들의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심부자극통증 치료기(CR 3000) 1대, 이비인후과 영역의 영상진단을 할 수 있는 진단 내시경 2대, 축농증 수술용 장비 1대 등

의의료기기와 약 200여점의 수술 치료 장비이다.

영등포 쪽방촌에 위치한 요셉 의원은 쪽방촌 주민은 물론 행려 병자, 노숙자들을 무료 진료해주는 병원이다.

강신호 회장은 지난달 초 방한 북 전달을 위해 쪽방촌의 요셉의원을 방문했다. 의료기기와 수술 장비가 부족해 곤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날 요셉의원을 다시 방문한 것이다.

강신호 회장은 『최저생계와 함께 몸이 아플 때 따뜻하게 치료받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의 마련에 각계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밝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소포장’ 제약업계 자율에 맡겨야 의무화시 추가 비용 발생...원가상승분 보전을

제약업계는 의약품소포장 문제는 제약사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의약품소포장을 의무화할 경우에는 제조원가 상승분에 대한 원가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약업계는 최근의 의약품소포장 의무화 논의와 관련, 의약품의 포장 형태 및 단위는 의약품의 물리·화학적 성질 및 사용의 고유한 목적에 의해 결정되고, 시장의 특성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약품소포장 문제는 제약사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의약품에 대한 소포장을 불가피하게



제한할 경우에는 소포장 의무화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제조원가 상승분에 대하여는 원가보전을 위한 약가보전 등 정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약국의 재고의약품 문제는 소포장 의무화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약국의 불용 의약품은 처방약이 변경됨으로 인해 누적될 수 있으며, 의약품 과다 구매로 인해 야기되는 경우도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지역 의사회가 처방약 리스트를 작성하여 약사회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수정을 의무화하도록 한다면 약국 내 처방의약품의 적정 재고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처방약 변경으로 인한 약국재고 과다 문제는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후통보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등 정부의 제도적 보완으로 크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의약품 수요량 적정 산정 및 구입을 유도할 수 있는 의약품 관리 프로그램을 약사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하는 방법도 의약품의 과다 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제시했다.

한편 2001년 의약품 반품 규모는 514억원 이었으며, 2004년 추산된 약국의 재고 의약품 규모는 600억 원이었다. 의약품 자체의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대규모의 의약품 반품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제약사에 직접적인 경영 악화 원인으로 작용하여, 총체적으로는 제약산업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소포장 의무화로 인한 제조원가 및 물류비 상승 등이 제약업계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련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한국제약협회

회	장	김	정	수	부	이	사	장	양	흥	준		
이	사	장	이	장	한	부	이	사	장	김	진	호	
부	이	사	장	차	중	근	부	이	사	장	백	승	호
부	이	사	장	김	영	진	부	이	사	장	이	경	하
부	이	사	장	강	문	석	부	이	사	장	운	재	승
부	이	사	장	허	일	섭	전	무	이	사	신	석	우

외 회원 일동